

로그인 회원가입

BTN바로가기 BTN온에어 편성표

BTN 뉴스

오전 7:00, 10:00 / 저녁 7:00, 10:00

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종단 포교 문화 사회 신행 전체뉴스 실시간뉴스 포토뉴스 행복한불서 이슈&피플 세계불교 전국 날짜별뉴스

최종편집 : 2021.10.19 화 11:20 (불기 2565년)

ARS 060-800-7000 ♥ BTN 정기후원하기

HOME 실시간뉴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격려 방문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0.08 17:32

댓글 0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불교를 이루는 네 축인 사부대중이 신심과 원력을 드높이기 위해 길을 나선지 8일째.

긴 순례기간 가운데 한 번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굵지 않은 이슬비여서 순례에 큰 지장은 없지만 순례자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지역 불교사암연합회가 순례단의 고행을 돕기 위해 찾아와 따뜻한 차와 수건을 건넵니다.

반야스님 / 거창불교사암연합회장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정말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불자들이 감화돼서 더욱 더 불교가 중흥하고,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체뉴스



2021년 10월 19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8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6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진관사 찾은 행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



물라상가 인도불교 복원·수행지도자 양성



3D 프린터로 빛어낸 석불..안한식 전시회

하루 30km, 다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원력만으로 걸음을 옮기는 순례단은 어느덧 법보종찰 해인사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발심으로 계속되는 한국불교 중흥결사를 응원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깜짝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새로운 결사를 만들어가는 자승스님과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불자들의 신행운동을 펼치는 원행스님은 어느 때보다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로의원 우경 대종사, 해인사 선용 대종사,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스님을 비롯한 10여 곳의 본사 주지 스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순례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원행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삼보사찰 천리순례) 공덕으로 불교가 더욱 중흥하고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없어지고, 전 세계에 인류평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연꽃을 피워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전국 사찰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에서도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승스님과 함께 종교지도자로 활동했던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는 이번 순례의 감동이 종교를 넘어 일반사회까지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김희중 /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자승스님께서 이렇게 도보순례를 하시면서 받으시는 어떤 고통도 있지만, 고통과 함께 자연의 고마움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고마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교중흥은 단순히 어느 종교의 융성을 넘어 우리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로 그 가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가사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락

분황사는 신라왕경 중심지..유적정비 시급

(삼보사찰 천리순례 14) 호국정신 되새겨

조계종 사노위 “기후위기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삼보사찰 천리순례 10) 지역민들의 배려에 감동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브이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S**